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 4: 10)

저는 지난 1월25일 일차 정기 검진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2월 25일에 탄자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검진 결과는 폐렴이 있지만 종양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나머지는 너무 좋은 상태라 내년부터는 일년에 한번만 정기 검진을 받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귀에 있는 진주종양도 응급 조치를 받고 올 7월 수술 예약을 했습니다. 모든 진단과 과정이 순조롭게 결과가 나오고 진행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한달을 일년처럼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한달이 마치 일년처럼 길었던 이유는 아내 서선교사도 보고 싶었고 늣둥이 주성이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두고 온 시험배지에 토마토 나무, 커피나무들의 하루하루의 변화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농장에 출근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새로운 시험도 시도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나니 갑자기 미열도 나면서 목 감기가 심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이주일을 꿈쩍 못하고 집에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가기 3주 전부터 장티푸스, 세균감염, 또다시 한국에서 폐렴, 귀 응급 조치로, 다시 탄자니아에서 목감기로 두 달 가까이 강한 항생제를 계속 복용을 하며 한국서 한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는게 좀 부실했던 것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휘청거리는 다리의 힘은 온전하지 않지만 거동하기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요즘 몸은 좀 부실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으로 마음만은 청명한 하늘입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커피의 첫 수확을 했습니다. 연분홍이 넘쳐 빨간 홍초롱이 된 커피 한 톨이 19년의 묵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채워 주었습니다. 재배의 현황은 흰 차광막 아래의 10그루와 검은 차광막 아래서 6그루의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특별한 점은 검은 차광막 아래서 재배된 커피

나무의 열매의 크기가 고르게 약 60%정도가 좋은 크기의 열매였습니다. 맛은 어떨지 궁금했지만 이제 커피 재배 가능성을 보았으니 거름이라든지 빛의 투광도를 조절해서 좋은 맛의 커피로 향상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앞으로 시험 재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루샤와 모시에 150여 그루의 커피 묘목을 갖다 놓고 밭이 준비되는 대로 심으려고 합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배지 만들기

커피 나무의 특성중의 하나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비닐을 이용해서 물의 유실을 막고 거름도 좀더 커피에 맞는 유기질 비료를 개발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아루샤에서 온 스탭에게 집에 가면 커피 나무를 가져다 심어 보라고 하고 한국을 가서 항암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 스탭이 커피 묘목을 가져와서 네트 하우스안에다 심었는데 다른 부분의 네트 하우스는 거의 다 망가지고 커피 나무가 있는 부위만 네트가 벗겨지

지 않고 겨우 보존되어 있었고 그 밑에서 커피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커피를 첫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토마토도 시험 배지에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서 인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확을 하지는 못했지만 요즘처럼 뜨겁고 건조한 햇빛 아래서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은 큰 가능성을 갖게 합니다.



선교현장에서 시간이 길어 질수록 한가지의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선교를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깊어 갑니다. 한 기독교방송에서 3.1절 특집 방송으로 한부선 선교사와 그의 아버지 한위렴, 장인 방위량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한부선 선교사의 어린시절과 신학의 배경과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한 선교사의 신앙과 신학이 그리고 삶이 선교지의 현장에서 현실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끝없이 공부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한 선교사의 보수 신학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시대가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도 역시 정보와 의견과 다양한 신학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교사 한사람의 신학과 신앙이 현지화 되면 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떡과 복음을 기초로 해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후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지면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흐름이 조선의 선교 초기보다 어쩌면 더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학

과 신앙 그리고 다시 현지에 있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더 험난하기도 합니다. 농업이라는 전문성과 신앙과 신학을 갖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긴 시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산림 농업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신학과 신앙 그리고 농업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로 교육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능력과 건강 등 외적인 조건들을 생각하면 학교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이 땅에 필요하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확신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행정적인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CDP어린이 사역은 김상준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차분히 재정립을 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 학부형들과도 자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며 온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목, 금, 토요일에 전체 학생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영어, 수학, 세계관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공부하며 세계관 시간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나



보드게임 등 평소에 접해 보지 못했던 자료를 통해 새로운 것에 눈을 뜨고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 책읽기, 수업 참여도에 따라 달란트를 부여하고, 기존에 그냥 받던 선



물들을 이제는 이 달란트로 사야 한다고 하자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와 책읽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환경도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지하수를 뿔어 올리기도 하고 사

무실과 방에 선풍기도 설치해서 강렬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물건들을 정리할 창고도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도서관도 새롭게 정리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돌아와서 영란 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큰 트랙터로 빌리마 비타투교회와 시디피 교회 성도들과 마을의 어려운 분들에게 밭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땅이라 트랙터도 갈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이 땅 구석 구석을 묵은 땅을 경작하듯 스며들어서 이 땅이 옥토로 바뀔 수 있기를 기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입니다:

1. 산림 농업 중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영육간의 건강과 인내와 지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개척중인 두 교회(빌리마 비타투, 루봉고)와 지금 신학중인 세사람(존, 에보디, 코스타) 특히 올해 졸업하는 존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공동체에 있는 현지 스탭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비가 너무 안 오고 있어 농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비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6. 어린이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자라며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맡고 있는 김상준/이은신 선교사와 어린 두아가들이 건강하고 기쁘게 생활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관심과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탄자니아에서 윤봉석, 서순희 선교사드립니다.